

#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교

시도행전 13:1-3

이종우 선교사님

복음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흥경하는 최목사님, 또 정운돈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오니까 마음이 기쁘다. 한 번쯤 꼭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처음 왔다. 보통 선교대회 끝나면 바로 돌아가는데, 이번 주에만 특별히 남았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기쁘다. 오후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소망이 있다, 미래가 있다,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다.

유명한 선교학자인 케네스 라도테르라는 사람은, 19세기를 가장 위대한 세기였다고 했다. 19세기에 교회들이,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오직 선교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대한 세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선교에 집중하면 자신과 후대와 교회 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살리게 된다. 그래서 선교는 부담이 아니며 의무가 아니다. 선교를 정말 알게 되면, 모든 응답을 받는 축복이다. 한국교회가 침체와 갈등에 빠진 이유는 선교에 방향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교에 방향을 못 맞추는 이유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정말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을 아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헌신하게 된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데도 내 문제 때문에 불신앙하고 갈등한다. 그러면서 참 응답을 못 받는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최고의 바른 복음이다. 나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일본선교회라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다. 그때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자기는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 면서부터 시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일본의 문제는 딱 한 가지라는 것이다. 딱 한 가지가 없어서 멸망한다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깨뜨리시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다. 이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너무 많이 열리니까 바쁘고 감사하다는 것이다. 이 복음이 무엇이나 질문했더니, 다락방 전도훈리라고 했다. 그래서 다락방을 알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일본선교회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해 주셨던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믿기 힘든 일인지 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었다. 나는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충격이 되어서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다. 어떻게 선교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붙잡고 다락방 전도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전도는 되어서 되어서는 되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무거운 것이 내려 놓아졌다.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문이 열려서 후쿠오카로 가게 되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잠깐 다루는 수준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정상이다. 초대교회는 3직을 말했는데, 어느 것을 가장 강조했는가? 이레니우스라는 교부가 있었다. 이 사람이 조직신학의 아버지다. 잘못된 신학과 이단, 각종 종교를 분별하면서 많은 책을 썼던 사람이다. 이것이 무엇을 가장 강조했는가? 왕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유혹을 받고 승리하셨을 때 이미 마귀는 꺾였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원히 정복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구원받았다. 이것을 강조했다. 마귀를 멸하신 왕이 70%,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이 30%의 비율이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의 의였다. 왜 그런가? 성경의 결론을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하겠는가? 무슨 책이든지 저자의 의도를 알고 싶으면 결론을 봐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결론은 계시록이다. 계시록에는 그리스도와 마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멸하는 것이 계시록의 주제다. 그러니까 성경은 갈수록 명확하게 답을 준다. 창세기 3:15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사단을 멸하는 것이 하이라이드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리만 빼려고 한다. 교회사를 보면, 9세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거의 크리스천이 되었다. 형식적이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 필요없게 된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자기 왕 되려고 그리스도 왕을 빼 버렸다. 지식인들이 싫어하니까 빼 버렸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십자가는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왕 되신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다가 마르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다. 성경을 번역하고 오직 믿음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루터에 의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다 회복되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사단, 마귀, 사망, 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왕이다." 그래서 루터의 찬송을 보면, 가톨릭 교회가 마귀라고 하면서 분한다. 그런데 제자들부터 당장 없어지고 제사장만 남는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도 그렇다. 왕을 강조하지 않고 제사장 강조를 한다. 왕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고 한다. 70% 왕을 강조하는 것이 초대교회 신학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종교든지 다 같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유주의다. 그런데 루터 이후 500년 만에, 이 신학을 우리가 회복시킨 것이다. 스웨덴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구스타프 아올렌이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다. 놀라운 책이다. 칼빈은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한 분인데,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알려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삼중직을 모르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다. 처음 기독교강요 초반에서는 왕, 제사장만 강조했는데, 마지막 개정판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밝혔다. 그런데 요즘 보수 개혁주의 신학자의 책을 보면 왕에 대한 내용을 안 쓴다. 사단을 박살낸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정하고 한다. 두 눈 가진 사람이 정상인데 하나 가진 사람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전도현장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한다.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왕 되신 그리스도를 물렸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낙심해서 무너졌을 것이다. 선교사 가정이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족함 나를 통해서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가 세워지게 되었다. 공식적인 학교 인가를 받은 신학교와 시 인가를 받은 유치원을 세웠다. 12곳의 지교회와 있다. 6개 나라

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8명의 선교사를 두고 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일본에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스도의 왕직을 강조하면 누구든지 응답받는다. 이게 정상이다. 나는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 교회, 일본 신학교를 위해서 책을 써서 8천 권을 인쇄했다. 200개 신학교와 7천 곳 교회에 다 보냈다. 한 사람도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다. 어떤 목사님은 이 책을 기준으로 목회를 하겠다고 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선교도 되고, 신학교도 되고, 교수님들을 살리는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전부고 모든 문제 해결지침을 아니까 선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선교는 모든 응답이다.

## 1. 선교는 하나님의 주목적이며 교회의 주목적

성경의 주제는 선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선교라면, 교회는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왜 후대를 키우는가? 세계선교를 위해서 복음 인재를 세워서 파송하기 위해서이다. 왜 산업선교를 하는가? 정말 복음경제를 가지고 세계선교를 하기 위해서이다. 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하는가? 세계선교를 위해서이다. 선교를 빼고 램턴트 말하면 완벽하지 못하다. 세계선교를 빼고 산업선교를 하면 완벽하지 못하다.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지만, 성전을 크게 짓고 나서는 싸우고 침체되었다. 선교가 주 목적이 아니니까 틀어져 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선교를 주 목적으로 하셨다.

(1) 시도행전 13:1-3과 동일한 짝이 있다. 구약에 짝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구약의 짝을 말씀드리겠다. 창세기 12:1-3이다. 이 말씀과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같은지 모른다. 아브라함은 구약 교회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분이다. 교회의 시조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너무나 잘 믿고 자식들만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약의 교회들은 어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몰라서 노예가 되었다. 또 구원해 주셨다. 또 모른다. 포로가 되었다. 또 모르니까 속국 시기와 구약 교회를 없애 준 것이다. 그 대신 신약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 교회와 다른 새로운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다.

(2)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바로 천국으로 가고 싶으시고 굳이 40일 동안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것이 선교 명령이다. 부활 메시지는 선교 메시지다. 마태복음 28:18-20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미션이요 목적이며 명령이다.

(3)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시도행전 1:8, 성령의 주목적은 선교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미션을 받았는데도 안 간다.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도들처럼 안 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교회를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데 왜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안 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다. 내 문제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안디옥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였다. 최고의 교회였다. 참사랑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되면 된다. 안디옥교회는 인종도 신분도 다 달랐다. 그런데 오직 복음으로 하나되었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되었다. 마귀가 벌벌 떠는 교회가 되었다. 모든 응답을 받았다. 영원한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참사랑교회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교회 이름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얼굴을 키우고 산업을 통해 경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우리교회도 원래 나고야중부교회였는데, 이름을 바꿨다. 복음선교회였다. 복음의 증거는 영세 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 나신 바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다. 그 이름을 따라가도록 기도했다. "한 교회가 일본 전체를 전도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선교하겠습니다." 목회를 맞추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셨다. 우리가 무능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참사랑교회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는다.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많은 것이 시작된다.

## 2.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세운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요, 오직 성령으로 담 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먼저 파송하라. 왜 그런가? 이 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인도를 받아서 해야 한다. 이번 21차 세계선교대회 주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창세기 41:38이다. 요셉은 구약 최초의 선교사였다. 이 사람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선교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감동되어서 이루어졌다. 노예가 될 할 수 있었겠는가. 관공 간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했다.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다. 오직 그리스도면 된다. 여기에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1) 그 두 사람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난 곳 이 시도행전 13:5이다. 첫 번째 간 곳이 어디인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회당이었다. 어디를 가든 회당으로 갔다. 구약의 교회다. 모든 것 다 있는데 복음만 모르는 교회다. 여기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였다. 복음만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 들은 사람이 살아났다. 후대가 살아났다. 회당은 램턴트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후대와 교회가 사단에게 지는 것이다. 왕 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일본의 교회는 우리보다 26년이 앞섰다. 좋은 목사님, 좋은 신학자가 많이 나왔다. 최초의 한국 기독교인인 엘리트가 이수정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받았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분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왔다. 수원 최초의 교회는 동신교회인데, 이 교회를 세운 분은 일본 선교사였다. 놀라운 일이다. 선교사님이 한국 옷을 입고 한국 말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모님이 영양실조로 순교했다. 서양 선교사님 중에서 이렇게 한 분이 없었다. 그 두 분이 그렇게 했다. 토마즈 마샤야스(乘松雅休)라는 선교사님이다. 수원에 가 보라. 수원 동신교회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없다. 나는, 일본에 교회가 없으니 선교하러 가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 지금은 빛의 만분의 일도 못 갔겠다 하는 생각으로 선교하고 있다. 정목사님의 외할머니가 일본 사람이다. 타우치 치즈코(田内千鶴子)라는 분이. 일본 사람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문 믿음의 위인 세 명 중 하나가 그분이다. 그분의 출생일을 그분 출생 도에서는 국제교류의 날로 지정되어 있다. 그분이 한국 공무원으로 왔는데 크리스천이었다. 그때 일본의 엘리트들은 기독교인이 많았다. 이분이 식민지 국가의 가난한 한국인 전도사와 결혼하게 된 것이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 일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세운 교회가 150개가 있었다. 우리는 한일감정이 너무 나빠서 일본 사람이 나쁜 일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해야 한다. 세상 나라는 한국 일본 다 나쁘다. 마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 일본, 다 귀하디. 일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배울 점이 많았다. 그런 분들이 와서 희생해서 한국 교회를 섬겼다. 사람들은 너무 오해를 하고 있다. 일본이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일본 교회의 개인은 너무 훌륭하고 바르다. 우리가 배울 게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예수 안 믿는데 왜 잘 사느냐 하는데, 이유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26년 앞서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왔다. 일본에는 대학이 10개 중 하나는 미션스쿨이다. 지금도 거기에서 필수 과목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지금 세계 기독교 대학 중에서 성경을 필수로 가르치는 곳은 일본 뿐이다. 일본에는 다 있다. 복음만 없을 뿐이다. 일본에 처음 갔더니, 목사님이 너무 나심해 있고 사모님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들은 학교를 안 가고 있었다. 그분에게, 그리스도만 알면 끝난다고 이야기했다. 이분과 성경공부를 했는데, 그 아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하나님, 저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8천 개 일본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일본 청소년학원이 세워졌다. 이것이 나고야 램프대회로 연결되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응답이 시작되었다. 우리교회에 일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다. 대부분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인들 중심으로 선교한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개척한지 3, 4년 만에 일본 사람이 몰려왔다.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2) 6절에 보니까, “은 섬 가운데로 지나 비바에 이르러 비베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미사사를 만나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사단의 종도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귀신에 들렸다. 사단의 종과 사단의 자식은 다르다. 이 사람이 사단의 자식이다.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아브라함은 부른 목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해결 아닌가? 하나님이 안다속교회를 세운 이유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무속, 절교, 우상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었다. 이 우상을 진짜 믿으면 귀신이 되니까. 귀신 죄가 들린다. 귀신이 저마다 나타낸다.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사단을 쳐부순 왕이다. 죄를 다 용서한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예수님 영접시키면 금방 귀신이 떠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잠도 잘 자게 되고 다 편하다. 그러니까 진도에 올 인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 가서 종교는 다 같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선교만 하나가 안 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다 귀신들려 왔다. 유럽에는 땅차가 많다. 일본은 다 마귀의 종이다. 그러니까 마귀에서 건져주어야 한다. 왕을,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도를 믿다가 귀신 보이고 영광이 되었다. 알콜중독에 강강도 영광이 되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람을 통해서 4년 만에 30명이 교회화되었다. 한 명의 장로와 2명의 중직자가 나왔다. 이분은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불이 붙게 되어 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 붙었다가 살아나니까, 끝까지 따라붙었다. 귀신 체험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다. 우상이 제일 많다. 그 우상이 다 한국에서 왔다. 불교 우상이 한국에서 넘어갔다. 신도의 신인 천황이 한국에서 넘어갔다. 그대 높고는 일본이 나쁘다고 한다. 귀신들리니까 나쁜 수밖에 없지 않다. 그 원인을 제공해놓고 나쁘다고만 한다.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가장 절악한다. 일본 국민들은 너무 가난하다. 아베 총리가 외국에 차관을 다 빌려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조건 나부터 살자는 것이다. 일본 사람은 국가,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절악한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절약하는지 모른다. 일본 사람이 적게 먹는다는데, 절약해서 그렇다. 좋은 점이 너무 많다. 복음만 들어가면 한국을 제일 도울 사람들이다. 일본 가서 성공한 기업이 한국 뿐이다. 롯데는 야구팀까지 만들었다. 만약 일본 그룹이 한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냐? 복음만 들어가면 된다. 나는 일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세계에 없다. 예수만 믿으면 세계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들이다. 진짜 일본 선교를 해 보라. 일본 사람들은 독도, 대마도 다 잘 사람들이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두고 같이 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대중 대통령 때 결정했다. 그래서 일본 배들이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어업을 했더니 막 욕을 하고 던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마네 현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독도 우리 대라고 하기 시작했다. 다 합의한 것인데, 정부는 자기 인기를 위해서 다 숨긴다. 너무 필요없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는 땅을 훔쳤다. 천황을 위해서, 천황의 명령 때문에 했다. 명령에 충성한 것이다. 이용당한 것 뿐이다. 내가 일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미워하니까 선교의 바탕을 못 본다. 미운 곳에는 선교를 할 수 없다.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도 이 삼직을 주셨다. 사단을 이겨야 한다. 제사장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직을 모르고 미워하면서 전도가 안 된다고 한다. 영권을 못 쓴다. 흑암을 못 켜는다. 용서도 안 한다. 우리가 용서해야 주님도 용서하신다. 이게 놀라운 약속이다. 그래서 참사랑교회만은 일본을 이해해야 한다. 일본을 품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왔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빛이다.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선택이다. 아프리카 54개국을 선택이다. 그러나 필수가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일본이다. 일본 안 하면서 아프리카 가는 것은 넌센스다. 열집 사람 전도 안 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있겠는가? 열집 사람 전도해서 선교후원자로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것이다. 일본은 동역자다. 일본과 한국이 동역자가 되면 세계복음화를 살릴 수 있다. 시간대도 같다. 문화도 같다. 언어도 비슷하다. 그런데 일본에 안 오려고 하고, 왜도 일본놈 한다. (웃음)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것을 못 봤다. 나는 전라북도 정읍 사람이다. 백제 시대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불교, 유교, 신도 우상을 다 지냈습니다. 나는 만분의 일이라도 죄에 대한 빛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왔습니다. 나는 만분의 일이라도 빛을 갈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문이 열렸다. 나는 원래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3) 마태복음 24:14, 재앙을 막는 길이다. 전도는 재앙을 막는다. 내가 1995년에, 고베 대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 저 지진은 우상숭배 때문에 난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한국에는 교회도 신학생도 많은데 일본에 전도를 안 하니가 지진이 났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6년에 간 것이다. 그래서 나고야로 갔더니, 나고야에서 지진 날 것이라고 자꾸 방송하는 것이다. “하필 왜 나고야입니까. 어떻게 해야 재앙을 막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캠프했다. 빛을 받았다. 지금까지 지진이 없었다. 그래서 2017년까지, 1%만이

도 꼭 일본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기도가 필요하다. 1%는 꼭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자유화된 나라 중에서 1%도 기독교화가 안 된 나라는 일본 뿐이다.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일본 선교를 해야 한다. 이 교회 지을 때 어디 돈으로 지었냐? 엔화로 지었다. (웃음) 일본 언약 붙잡으면 엄청난다. 정윤돈 목사님 집안이 대단하다. 국회의원 나가고 된다. 황을 해야 한다. 내가 시간이 없다. 바울은 정지기를 만나서 움직였다. 한국인이 정지인 전도할 수 있는 나다가 일본 뿐이다. 중국 가서 그러면 잡힌다. 성경을 보면, 선교를 선진국으로 갔다. 영적 문제 많은 나라로 갔다. 일본에 가면 정윤돈 목사님의 큰아버지가 양로원을 크게 했다. 일본 수상들이 돈을 냈다. 일본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양로원이다. 그렇게 도움 받으면서 전도는 안 한다. 나는 참사랑교회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제사람. 최복사님이 폭포 분이다. (웃음) 나는 이 말을 전하려고 왔다. 기도만 하면 된다. 어떤 응답이 오겠는가? 내가 일본복음화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복을 왜 모르느냐 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은 맛있는 집을 절대 친구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오레 기다려야 하니가. (웃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 좋은 일본 선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것이다. 일본 대학은 유학생들에게 거의 장학금을 준다. 취직 안 되는 경우가 없다. 그런데 취직해서 정신병 와서 쓰러져 버린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은 공부하지 않는다. 영적문제가 후대에게 넘어왔다. 여러분이 돈만 받아서 공부하면 장학금 받고 취직되고 재벌된다. 일본 신학교로 와라. 공짜다. 돈 많아서가 아니다. 안 먹으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다. 일본에서 게이오 와세다, 나고야대학 가는 것은 쉽다. 그 찬스를 한국 사람들이 모른다. 일본사람을 싫다고 한다. 뭐가 싫다. 너무너무 잘 모른다. 가슴이 아프다.

### 3. 기도와 믿음으로 헌신

온 교회가 마음을 품는다. 전도와 선교는 온 교회가 마음을 품고 기도와 믿음으로 헌신해야 한다. 3절에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선교는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공부도 일도 사업도 교회생활도 기도로, 선교도 기도로, 왜냐? 사단은 성령이 아니면 얼마든지 넘어뜨리고 속인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감사를 누리면서 성령충만받는 것이다.

(1) 기도의 기준은 성령충만이다. 성령충만을 어떻게 받나?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누리면 구원의 감사가 나온다. 구원을 늘 감사하 담뽀면서 성령충만하게 된다.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 없는 구원을 이 삼종직으로 받았지 않다. 강단말씀을 가지고 목상하다. 거기에 집중하다. 그러면 성령충만하다. 나는 한 달 지나면 설교한 것도 잊어버리는데, 우리 사모는 1년 치 제목과 성경구절을 암송한다. 새벽기도 때마다 하나씩. 그렇게 했더니 30년 동안 읽었던 B형 간염이 치유되어 버렸다. 말씀을 가지고 집중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성령충만의 두 가지, 감사와 말씀 목상이다. 찬양이 되고 말씀성경이 된다.

(2) 믿음이 생긴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믿음이 믿음과 성령충만을 주시는 것이다. 처음에 가니까 후원이 없었다. 내가 오고 나서 IMF가 왔다. “하나님, 후원해 주세요.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죠.” “그런데 왜 안 믿냐?” “네, 이제 믿겠습니다. 후원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이 생겼다. 한국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했다. 그렇게 할 믿음이 생겼다. 일본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이 아니다. 부족하다.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은 주신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준을 묻지 않으신다.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신다. 죄 없다 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왜 죄가 많으냐 물으셨다. 제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느냐고 물으셨다. 믿음 없으니가 전도 선교 못 한다. 믿음이 있으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다. 사업가로, 학생으로 증인이 되는 것이다.

(3) 참 헌신이 생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다. 안다속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다. 헌신이다. 나는 선교하려 갈 때, 위에서 피가 나고 힘들 정도였지만 갔다. 2주 동안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어떤 의사를 만났다. “성도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는 게 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이분에게 환자들이 몰려드는 것이다. 하루에 300명씩 몰려들었다. 이분을 통해서 교회 네 곳을 세웠다. 믿음은 헌신이다. 작년에 세워진 한 곳, 논이 안 보이는 부부의 헌신으로 세워졌다. 어머니에게 받은 유산, 10억 원 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일본에 선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다. 이분은 나를 모세라고 부른다.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풍요롭 환자였다는 것이다. 그런 자기를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켰으니 모세로 부르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모세 목사님은 너무 많아서 이 사자로 이름을 지었지만, (웃음)

참사랑교회와 모든 나라를 다 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 필수가 일본이다. 일본을 통과하지 않고 세계선교를 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 파장은 한국까지 온다. 일본 방사선이 누출되면 한국에도 온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운명이다. 중국은 그 국가 자체는 흑암이다. 북한을 끝까지 편든다. 일본은 끝까지 한국 편이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미워하고 중국, 북한을 좋아한다. 그게 흑암의 생각이다. 미워하지 마라. 참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다. 한국 교회가 일본만 이해하고 기도하면 일본은 금방 복음화된다. 가장 안타깝다. 어느 한국 교회에서도 ‘일본을 사랑하겠습니다, 일본을 선교하겠습니다, 일본을 품고 올 인하겠습니다’ 하는 교회가 없다. 한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그랬었는데 지금 안 한다. 온누리교회가 조금 하려고 했다. 그것 하면서 다 응답받고 축복받았다. 지금은 안 한다. 일본선교는 종합적 축복이다. 같은 축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다. 사랑하는 심주환 선교사님을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다. 꼭 기도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 일본 교회가 살아나고 일본의 흑암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같이 일본을 용서하겠다고, 일본을 살리겠다고, 일본을 품겠다고 기도하자. 한 나라를 살리겠다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마음을 담고 부족한 종이 전달했습니다. 참사랑교회와 일본이 필수라는 언약을 붙잡고, 1%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한 교회만이라도 일본선교를 위해서 올-인케 해 주옵소서. 최복사님을 강권케 하시고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며, 일본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강권케 하옵소서, 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램프의 미래를 열어 주옵소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경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